

'18.10.8.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대출 -

2018. 10. 8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중금리대출 추진경과 및 평가	1
1. 추진경과	1
2. 평가 : 성과 및 한계점	2
가. 성 과	2
나. 한계점	3
II. 향후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4
1. 정책 중금리상품 : 마중물역할 지속	4
가. 사잇돌대출 공급지속, 지원요건 완화	4
나.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	5
2. 민간 중금리상품 : 금리요건 정교화, 공급기반 확대 ...	6
가. 민간 중금리상품 금리요건 정교화	6
나. 민간 중금리상품 공급기반 확대	7
다. 기타 민간 중금리 인센티브 부여 검토	7
3. 정보공유체계 구축 : 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	8
III. 기대 효과	9
IV. 향후 추진일정	10
<참고> 사잇돌 ·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 현황	11

I. 중금리대출 추진경과 및 평가

1 추진 경과

□ 구조적인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저신용자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대출 상품을 공급

* 사잇돌대출 출시 : (은행)'16.7월 (저축은행)'16.9월 (상호금융)'17.6월

* 민간 중금리상품 출시 : (은행·저축은행·여전)'16년 (상호금융)'17년

□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이후 약 2년여간 공급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18.6월 현재까지 총 6.6조원 규모 대출 공급

○ (사잇돌) 서울보증보험 보증공급을 기반으로 하여 중위소득·중신용자 등 대상으로 총 2.1조원 공급

- 은행·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낮은(7~8%) 금리 수준으로, 총 1.1조원(은행 0.9조원, 상호금융 0.2조원) 공급

-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17%내외) 금리로 총 1.0조원 공급

* 저축은행은 타업권 대비 고객층 부실율이 높고, 사잇돌 지원요건도 완화
→ 높은 보증료율·예상부실율 등으로 사잇돌 금리도 다소 높음

○ (민간 중금리)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총 178개* 상품이 출시되어, 중·저신용 차주 등 대상으로 총 4.5조원 공급

* 민간 중금리상품 수(개) : (은행)58 (상호)16 (카드·여전)44 (저축은행)60

- 은행·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낮은(주로 5~10%대) 금리 수준으로, 총 0.9조원(은행 0.6조원, 상호금융 0.3조원)을 공급

- 저축은행·여전사는 상대적으로 높은(주로 15~20%대) 금리로, 총 3.6조원(저축은행 1.7조원, 여전사 2.0조원) 공급

<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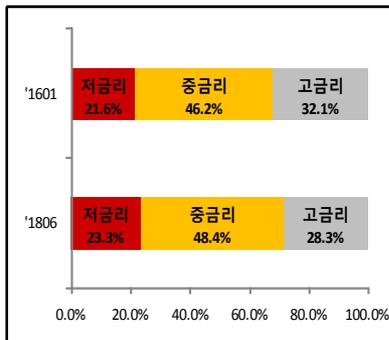
	'16년	'17년	'18.1~6월	합 계
사잇돌대출	3,729	9,566	7,886	21,181
민간 중금리	9,481	27,812	7,640	44,933
합 계	13,210	37,378	15,526	66,114

2 평가 : 성과 및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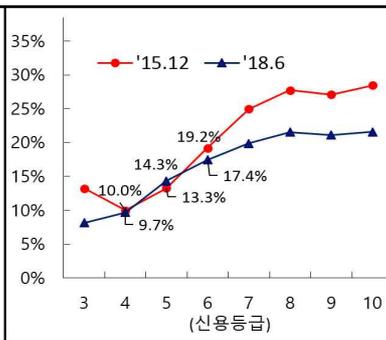
가. 성과

-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6~18%)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해졌고, 저축은행·여전사 등 고금리 업권의 대출금리 상승도 억제
- 중금리대출 출시('16년) 이후, 전체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저금리(6%미만) 또는 중금리(6~18%)대출을 받은 차주비중이 증가(KCB)
 - * 전 금융권 개인신용대출 차주 중 :
 - 저금리(6%미만)대출 받은 비중 : ('16.1월)21.6% → ('18.6월)23.3%
 - 중금리(6~18%)대출 받은 비중 : ('16.1월)46.2% → ('18.6월)48.4%
-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도,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다소 하락(저축은행)하거나, 크게 변하지 않는(여전사) 모습
 - * 카드채 금리 : ('15말)1.84% → ('18.6말)2.50% (+0.66%p)
 - * 저축은행 금리('15말→'18.6말, %) : (4등급)10.0→9.7 (6등급)19.2→17.4
 - 여전사 금리('15말→'18.6말, %) : (4등급)15.2→15.3 (6등급)18.8→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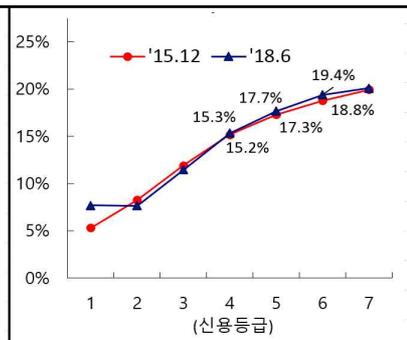
< 개인신용대출 금리대별 차주비중 >



<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 >



< 여전사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 >



- 사잇돌 대출 출시(은행 '16.7월) 이후 2년여간 공급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중·저신용 대출자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축적
 - * 2년간 대출공급한 차주 21만명에 대한 금융·소득·업력 정보 등 축적
- 축적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금융회사별 신용평가 인프라를 보다 정교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한계점

- ①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자금수요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책(사잇돌)·민간 중금리 상품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으며,
 - *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중 중금리대출 비중('18.6말) : 0.82%
 - 은행, 상호금융 업권 등의 취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 * 업권별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중 중금리대출 비중('18.6말) : (은행)0.57% (상호금융)0.15% (여전사)1.31% (저축은행)9.41%
 - 카드론 등 가계 신용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에서 아직 본격적인 중금리대출 상품이 출시되지 않음
(일부 중금리대출 공급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
- ② 중금리대출 금리기준 등에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 미약
- 現 민간 중금리대출 인정기준(특히, 금리기준*)은, 업권별 비용구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 업권 공통으로 제시
 - * 매분기 중 취급한 대출의 ①평균금리(잔액)가 16.5% 이하이어야 하고, ②해당 분기중 어떤 대출건도 금리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 동 기준은 전 업권 중 가장 비용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권 기준으로 설정 → 저축은행 外 업권에서는 실질적인 제한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음
(예 : 은행권 자체중금리 금리대는 주로 5~10%이며, 15%이상 대출건 전무)
 - 저축은행 外 업권에서는 중·저신용 차주를 선별하여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③ 금융회사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미구축
- 그간 중금리대출 도입기에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정보제공 체계도 미구축
 - 2년여간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따라 축적된 고객정보를 금융회사 신용평가 고도화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필요

II. 향후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

- ◇ 정책 중금리상품(사잇돌) : 민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될때까지 당분간 **마중물 역할을 지속**
 - '19년에도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현 3.15조원)를 확대하고, 사잇돌대출 지원요건도 다소 완화
 -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을 선도(“촉매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인터넷 전문은행 대상 사잇돌대출 출시)
- ◇ 민간 중금리상품 : 중·저신용 차주에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지도록 **요건을 정교화**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을 확대**
 - 업권별 비용구조 특성에 맞게 중·저신용 차주에 최대한 적합한 맞춤형 중금리대출이 공급되도록 금리요건 차등화
 - 카드론 등 기존 중금리대출 상품의 사각지대에도 민간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
- ◇ 정보제공체계 구축 : 정책 중금리대출을 통해 축적된 고객 신용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유도**

1 정책 중금리상품 : 마중물 역할 지속

가. 사잇돌대출 공급 지속, 지원요건 완화

① 사잇돌대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서울보증보험 내부 의결, '19.1분기 중)

- 사잇돌대출 공급이 '19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現 3.15조원 → 5.15조원)
 - * '18.6말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2.1조원(한도의 67.7% 기 소진)으로, 現 추세로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19년초에는 보증한도 소진 예상
- '19년중 사잇돌대출 수요 및 공급 증가속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

2 사잇돌대출 지원기준(소득·재직기준) 완화

(서울보증보험 내부 의결, 은행·저축은행 '19.1월, 상호금융 '19.1분기중)

- 보다 취약한 계층에도 정책 중금리대출(사잇돌)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기준을 완화

※ 이를 통해 ① 좀더 취약한 계층에 중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직접효과와, ② 동 계층에 대한 정보축적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유도하는 간접효과 기대

<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안) >

업 권	차주 유형	기 준	현 행	개 선
은행, 상호금융	근로소득자	연소득 재직기간	2,0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연소득 재직기간	1,200만원 이상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소득 재직기간	1,200만원 이상 연금수령 1회이상	1,000만원 이상 좌 동
저축은행	근로소득자	연소득 재직기간	1,500만원 이상 5개월 이상	1,200만원 이상 좌 동
	사업소득자	연소득 재직기간	8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600만원 이상 4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소득 재직기간	800만원 이상 연금수령 1회이상	600만원 이상 좌 동

* 연소득기준·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나.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

□ 인터넷 전문은행 대상 사잇돌대출 상품 출시

(인터넷 전문은행·서울보증보험간 협약, '19.1월부터 시행)

-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중금리상품(사잇돌) 출시 지원

* ①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중위소득·중신용 등 대상으로 보다 매력적인 상품 공급이 가능하고, ② 향후 사잇돌대출의 축적된 정보와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결합 등으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가능

-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을 적용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5.15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

※ 카카오뱅크·서울보증보험의 현행 유사상품(카카오 신용대출)을 사잇돌 대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19.1월) 완화된 지원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

2 민간 중금리상품 : 금리요건 정교화, 공급기반 확대

가. 민간 중금리상품 금리요건 차등화

□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19.2분기 시행)

○ (평균금리)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現 16.5% → 6.5%(은행)~16.0%(저축은행))

- 업권별 조달금리(정기예금금리), 부실율(고정이하여신비율), 판매·관리비(자산대비) 등 비용요인 + 1~1.5%p 수준에서 결정

→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기존 평균금리 기준 대비 $\Delta 0.5\%p$ (저축은행)~ $\Delta 10\%p$ (은행) 인하)

○ (최고금리)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
(기존의 평균금리 기준과 최고금리 기준간 금리차(+3.5%p) 유지)

→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안) >

	평균금리 (현행 16.5%)	최고금리 (현행 20.0%)	현행대비 인하폭
은행	6.5%	10.0%	$\Delta 10.0\%p$
상호금융	8.5%	12.0%	$\Delta 8.0\%p$
카드사	11.0%	14.5%	$\Delta 5.5\%p$
캐피탈	14.0%	17.5%	$\Delta 2.5\%p$
저축은행	16.0%	19.5%	$\Delta 0.5\%p$

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대

□ 카드론(카드 회원대상 신용대출) 민간 중금리 상품 출시

(카드사 상품개발, 금감원·카드사간 협의 등 필요, '19.2분기 시행)

- 카드사의 회원대상 신용대출 상품(카드론)의 경우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

※ 당초에는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규모가 과도히 확대되어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그간 상품출시 자제

→ 그러나,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차등화(카드사 중금리 기준 16.5% → 11.0%)가 시행되면 과도한 확대 우려가 크지 않은만큼, 금리 차등화 시행시기에 맞추어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를 허용

-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17년중 39.1조원)을 감안, 대출규모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

다. 기타 민간 중금리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기타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은행·상호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검토

- ①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現 시스템은 가계신용대출에 중금리대출 실적도 포함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중금리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 :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

- ② 중금리대출 취급실적 등이 우수한 은행·상호금융 조합 및 담당직원 등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포상 수여 등

3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신용평가 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① (1단계)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 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
(서울보증보험 내부 시스템 구축, '19.1분기 중)

- (대상정보) 소득수준, 근속연수, 연체일수, 연체금액, CB등급 등
 - (정보공유 범위) 각 업권에서 취급된 사잇돌대출 차주 정보를 같은 업권내 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에게 제공
 - (절차) 서울보증보험 보유 정보 → 비식별조치 및 적정성 평가 (평가단 구성) → 전산망 등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제공
 - (제공주기)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축적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19.1분기 중)하고, 이후 매년 연단위 제공
- ※ 현 단계에서는 비식별화된 자료가 제공되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CSS(신용평가시스템)에 접목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는 한계

② (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활용

- *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입법 추진중
- ①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 ②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수행
 - ③ 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사후통제 등 절차 마련
-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를 전문기관(예 :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신뢰도 실질적 향상 기대

③ (3단계) 비금융 데이터 수집·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 중·장기적으로, 비금융 데이터* 활용 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하여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 * 예 : 통신요금, 전기·가스,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Ⅲ. 기대 효과

①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 큰 폭 확대 기대

(‘17~’18년 연간 3.4조원 → ‘19년 이후 연간 7.9조원 수준)

-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충 등을 통해 연간 약 4.5조원 추가 공급 예상

② 중·저신용자 금융애로 해소, 금리단층 현상 완화 기대

-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 금리상승기에 중·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연체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

-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 선별·금리 인하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

③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그간 서울보증보험에 축적된 차주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초석 마련

- 정보활용방법의 제약 등으로 당장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의 월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활용도가 점차 제고되면, 금번에 구축한 정보제공 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IV. 향후 추진일정

과제내용	기관	추진계획
1. 정책 중금리상품 : 마중물 역할 지속		
- 사이트대출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서울보증보험 내부 의결)	서울보증보험	▶ '19.1Q
- 사이트대출 지원기준 완화 (서울보증보험 내부 의결)	서울보증보험	▶ '19.1월 ~
- 인터넷 전문은행 대상 사이트대출 상품 출시 (서울보증보험 의결)	인터넷 전문은행, 서울보증보험	▶ '19.1월 ~
2. 민간 중금리상품 : 금리요건 정교화, 공급기반 확대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 '19.2Q
-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카드사 상품개발, 금감원·카드사간 협의)	카드사, 금감원	▶ '19.2Q
- 민간 중금리 인센티브 부여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개선 등)	금융위	▶ '19.1Q
3.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 서울보증보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서울보증보험·신용정보원 간 업무협약 등)	서울보증보험 신용정보원	▶ '19.1Q
-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위	▶ '18.4Q 개정안 발의
- 비금융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신정원 등	▶ '19~(중·장기)

1. 사잇돌 대출

- (개요)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마중물 역할)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
* 은행권 '16.7월, 저축은행권 '16.9월, 상호금융권 '17.6월 출시
-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의 원금을 전부 보장(100% 보증)하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 초과시 추가 보험료 납부
- (대출조건) 은행 · 상호 · 저축은행 모두 대출한도는 1인당 2천만원 이내,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연소득 요건	- (근로) 2,000만원 이상 - (사업·연금 1,200만원 이상	- (근로) 2,000만원 이상 - (사업·연금 1,200만원 이상 - (농·축·임·어업 종사자) 1,200만원이상	- (근로) 1,500만원 이상 - (사업·연금 800만원 이상
보증요율	평균 2.7%	평균 2.8%	평균 6.0%

2. 민간 중금리 대출

- (개요) 중 ·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 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 (인정요건) ①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②최고금리 20%미만, ③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70% 이상을 실행 ④대출조건 등을 사전에 공시할 것
- 업권별 인센티브 내용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시행중)
여전사 (’1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시행중)
신협 (규정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 (인센티브 예시)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신협법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 중(연내 완료예정))